

## 생명연구원 전북분원 6월4일 개원

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6월4 공식 개원한다.

개원식에는 이상기 생명공학연구원장,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, 김완주 도지사, 유성엽 국회의원,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, 강광 정읍시장 등 주요내빈과 지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생명연구원 전북분원은 2004년 2월 전라북도, 생명연구원, 정읍시간의 업무협약(MOU)을 시작으로 4년간 총 사업비 176억원(국비 120억원·도비 25억원·시비 31억원)을 투자해 2006년 11월 완공했다.

부지 1만8522㎡, 건축 8784㎡ 규모로 지상 3층의 연구동 및 기숙사와 기업이 입주해 공동연구 할 수 있는 열린연구실 등 주요시설과 국내 유일의 최첨단 장비인 HTS(High-throughput Screening System) 시스템 등 바이오분야 연구장비 120여종을 구축하고 있다.

특히, 2단계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바이오리파이너리 센터 건립부지 2만5612㎡와 생물자원종합활용 센터 건립부지 약 4만2000㎡ 등 총 6만7612㎡(약 2만평)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.

윤병대 분원장을 비롯해 2센터 1실, 연구원 83명(15명 겸무)이 근무하고 있으며, 열린연구실에는 한국유기농업개발, 크린텍, 부성그린바이오, KG바텍 등 바이오분야 기업이 입주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.

주요 연구분야는 의약품, 식품, 화장품,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대사공학, 제조합단백질, 생물전환기술 등이며, 특히 지자체와 공동연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특화 연구개발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6/03>